



여자축구대표팀 추효주(왼쪽)와 이세진이 10일 중국 쑤저우 타이후 축구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본선행을 노리는 대표팀은 13일 중국과의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원정경기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본선행 꿈 놓지않는 여자축구

13일 중국과 2차전 2점차 이상 이겨야
1차전 동점골 강제팀 "승리 할 수 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축구대표팀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이 이끄는 한국은 8일 고양에서 벌어진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1차전 홈경기에서 1-2로 졌다. 이 패배로 한국은 13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차전 원정경기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올림픽 본선행을 이룰 수 있게 됐다.

1차전에서 한국은 체력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중국을 상대로 후반 초반까지는 대등하게 싸웠지만, 체력이 좋은 중국선수들과 몸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1차전 패배 후 지소연(헬스 레이디스)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졌다. 서로 (간격이) 멀어지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10일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은 2차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력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1차전에서 드러났듯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관건은 체력이다. 2차전에서 한국은 전·후반 90분 경기에서 2-1로 앞설 경우 연장 또는 승부차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

단시간에 체력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1차전의 피로도를 낮추는 '회복'이 중요하다.

비록 패했지만, 1차전에서 중국한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1차전에서 1-1 동점골을 넣었던 강채림(인천 현대제철)은 11일 대한축구협회가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역전승이) 가능할 것 같다. 1차전을 지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차전 필승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레알 마드리드, '엘클라시코' 3연승

메시 침묵...바르셀로나 리그 6연승 마감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와 라이벌전인 '엘클라시코'에서 이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2020~2021시즌 라리가 30라운드 홈경기에서 카림 벤제마와 토니 크로스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승점 66)는 리그 4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 무패(8승2무) 행진을 이어갔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와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엘클라시코 전적(리그)에서도 3연승 포함 75승35무72패로 앞섰다. 바르셀로나는 에이스 리오넬 메시의 침묵 속에 리그 6연승을 마감했다.

흡그라운드의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13분 벤제마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다. 루카스 바스케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벤제마가 문전에서 제치 있는 힐킴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8분엔 크로스의 프리킥이 상대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0-2로 뒤진 바르셀로나는 전반 추가시간 메시의 코너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15분 오스카르 밍게사의 만회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벽에 번번이 막혔다. 후반 막판 카세미루(레알 마드리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가운데 경기 종료 직전 일라이스 모리바(바르셀로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전반 40분 김태현 퇴장에도 끄떡없는 흥명보호



울산 현대 김인성이 1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9라운드 수원FC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인성 극장골...10명이 싸운 울산 '3연승'

후반 추가시간 바코 패스 결승골 연결
퇴장에 번번이 눈물 삼켰던 수원 FC
수적 우위 찬스 못 살리고 뼈아픈 패



K리그1(1부) 수원FC를 둘러싼 화두는 '오심'이다. 공교롭게 최근 수원FC의 경기에서만 3차례 오심이 나왔고, 그 때마다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가 연루됐다.

박지수는 성남FC전,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잇달아 퇴장을 당했으나 사후 오심으로 정정돼 모두 구제 받았다. 고통은 7일 광주FC와 8라운드 경기에서도 반복됐다. 광주 펠리페의 후반 초반 득점 장면이 문제였다. 펠리페가 박지수

의 목덜미를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음에도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하고도 골을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This is so ccer?'란 글을 올려 판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번에도 펠리페의 득점이 오심이란 결론을 내렸다.

일련의 사태는 수원FC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 올 시즌 K리그1로 승격됐음에도 핵심 수비수의 잇단 퇴장 여파로 번번이 승점을 쌓지 못했고, 최하위 권으로 내려앉았다. 참다못한 수원FC 팬들은 직접 나섰다. 11일 울산 현대와 9라운드 홈경기가 열린 수원종합운동장에는 '심판은 성역이 아니다', '핸드볼

파울의 기준이 뭐냐?' 등의 글귀가 적힌 다양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경기를 준비하던 수원FC 김도균 감독은 판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박지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판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확한 판정이 나왔으면 한다"며 조심스레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수원FC는 구단 차원의 작은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반 23분 장내 아나운서가 팬들에게 23초간의 박수를 유도했다. 등번호 23번의 박지수를 위한 짝 짝 응원이었다.

수원FC는 울산에 맞아 빠른 팀포의 공수전환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반 막판에는 퇴장도 얻어냈다. 전반 40분 울산

수비수 김태현이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수원FC 공격수 라스를 팔꿈치로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다. 울산 벤치가 항의했으나 VAR까지 한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수원FC는 0-0으로 맞이한 후반전 들어 더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공격 폼비 양동현과 라스가 설 새 없이 울산을 괴롭혔다. 그러나 수적 우위는 수원FC에 애석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울산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이동준을 앞세운 역습이 강렬했다. 잘 막고 기회를 엿보던 울산은 후반 추가시간 비수를 쏘았다. 바코의 패스를 후반 중반 교체 투입된 김인성이 결승골로 연결해 3연승으로 6승째(2무1패·승점 20)를 챙기고 선두 추격을 이어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3연패·선두권 진입 실패...서울의 봄, 언제 오나

부상 기성용 결장한 포항전 1-2
박주영 등 주축들 잇단 부상 악재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따스한 봄기운이 물씬한 요즘 K리그1(1부) FC서울 구성원들이 자주 떠올리는 표현일 것 같다. 또 졌다. 서울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에게 1-2로 무릎을 꿇었다.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포항 송민규에게 첫 골을 내줘 0-1로 뒤진 전반 34분 김진성이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후반 33분 임상협이 결승포를 허용했다. 이로써 3연패의 늪에 빠졌다. 3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전패다. 강원FC에 0-1(홈)로 졌고, 울산 현대

에 2-3(원정)으로 패한 뒤 포항에게도 무너졌다. 4승5패, 승점 12에 묶여 선두권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포항에게는 아주 달콤한 승리였다. 시즌 개막 2연승을 달린 뒤 6경기 무승(2무4패)의 부진에 빠졌으나 드디어 시즌 3번째 승리에 성공해 승점 11을 쌓아 본격적인 중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울은 시즌 개막을 준비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포항에서 임대 선수로 뛴 팔로세비치를 데려왔고,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윙 포워드 나상호를 영입해 전방에 무게감을 더했다. 다만 아킬레스건도 있었다. 베테랑이 너무 많다는 것. 주장 기성용과 최전방을 책임질 박주영이 출중한 실력을 갖췄다곤 하나 긴 시즌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역시 존재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민이 현실로 닥쳤다. 기성용은 포항전을 결장했다. 시즌 개막 후 처음 명단에서 빠졌다. 고질병인 허벅지 근육 부상 여파다. 박진섭 서울 감독은 1999년생 신에 김진성을 기성용의 대체자로 내세웠고, 멋진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중원에 목적함을 주지는 못했다. 특유의 빌드업 축구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서울은 기성용 이전에도 박주영을 잃었다. 기성용처럼 근육 문제로 포항전을 포함해 2경기 연속 결장했다. 복귀 시점은 미정. 출혈은 또 있다. 울산 원정에선 부상을 털고 돌아온 베테랑 공격수 고요한이 상대 김태환의 거친 플레이에 왼 무릎 인대를 다쳐 전치 4개월 진단을 받았다.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셈이다. 박 감독은 "의욕적으로 시즌을 준비했는데 무리했는지 팀 내 부상자가 늘었다"며 씩씩해했다.



FC서울 조영욱(왼쪽)이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강상우와 공을 따내기 위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1-2로 패한 서울은 3연패 늪에 빠졌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이 와중에 서울은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FC와 14일 안방에서 FA컵 단판대결을 앞두고 있다. 적잖은 부담을 주는 '서울 터비'의 엔트리 구성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다. 위기감이 드리워진 서울이다. 남정현 기자

6경기만에 첫 패...천적에 또 당한 서울이랜드

충남 아산전 막판 결승골 허용
14일 '서울 터비' 앞두고 찬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 뚫렸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FC가 쓰러린 시즌 첫 패배를 안았다. 서울 이랜드는 10일 잠실올림픽주경기

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6라운드 홈경기에서 충남 아산에게 0-1로 무릎을 꿇었다. 후반 추가시간 충남 아산 김인균의 득점이 결승포가 됐다.

올 시즌 개막 후 서울 이랜드는 승승장구했다. 정규리그 5라운드까지 무패(3승2무)를 내달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충남 아산은 몹시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2승1무2패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특유의 '짠물 수비'는 돋보였다. 고차 3실점만

허용하고 있었다.

서울 이랜드는 가장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해왔다. 5경기에서 12골을 넣었고 1실점을 했다. 특히 5라운드 홈경기에서 외인 공격 3총사 베네가스~바비오~레안드를 앞세워 부천FC에 맹폭을 가해 4-0 완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의 정점을 찍었다.

다만 한 가지 불안한 구석은 있었다. 지난 시즌 두 팀은 3차례 대결을 했고, 충남 아산이 2승1패로 앞섰다. 서울 이랜드는 첫 승을 따낸 뒤 2연패로 밀렸다. 이러한 흐름을 깨기 위해 홈팀은 강하게 나섰다. 9개 슈팅을 시도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충남 아산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의 공세를 잘 버텼고, 짜임새 있는 역습으로 기회를 엿보던 후반 46분 결승골을 뽑았다. 박세직의 침투 패스를 김인균이 원발 슈팅으로 골네트를 흔들며 확실한 '천적 관계'를 유지했다.

정 감독은 "충남 아산이 전술적으로 잘 준비했다. 팀에 좋은 경험이 됐다"며 애써 의미를 찾았지만 패배의 허탈함과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 서울 이랜드가 14일 K리그1(1부) FC서울과 FA컵 단판승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야 더욱 그렇다. 남정현 기자